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31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94,2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53,4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4,990원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일 | 산업분석_Update

통신서비스 9월 투자 전략

매도 중지, 이제 장기 매수로 전환하세요

9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사업 본격화될 전망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제시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피지컬 AI가 빅 이슈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 2026년 실적 호전 및 주주 환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가을부터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육성을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 및 AI 기지국으로의 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라 기대를 갖게 한다.

AIDC에 이어 AI 기지국 이슈 될 것, DPS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주가 오를 전망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단기 코스피 상승이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급등만 아니라면 통신주가 시장 수익률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7년 이후 서비스매출액 성장과 더불어 장기 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는 많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1) 미국 주파수 경매 및 5G SA 투자 본격화, 2) 국내 피지컬 AI 네트워크 전략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로드 맵, 3)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최종 사업자 선정, 4) 통신사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통신산업에 중요한 이슈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 대거 눈에 띈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통한 이익 증가 및 배당 재원의 추가 확보, AI 기지국 투자를 통한 본사 이동전화 APRU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악재를 압도할 것이라 판단이다.

9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AI 성과가 중요한 시점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더불어 9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KT=LGU+ 순으로 제시하며, 9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을 SKT로 선정한다. SKT가 AI 국책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엔트로픽 IPO 가격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고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월에도 재료가 많아 당분간 업종 대표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연말 5G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시장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 9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피지컬 AI로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기대배당수익률 매력적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피지컬 AI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AI 기지국 보급 확산 및 5G/6G 투자 가속화가 예상되고, 2) 신규 주파수 할당/투자 및 2027년 요금제 개편을 기반으로 다시 ARPU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3) 요금제 업셀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 시중 금리 수준을 고려해도 기대배당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이며, 5)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9월)	투자의견 (8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피지컬 AI 성공 위해 5G/6G 투자 가속화 전망 • 2027년 신규 주파수 공급, 요금제 개편 예상 • ARPU 성장 재개 감안 시 통신사 밸류에이션 매력적 • 장기 DPS 성장 지속될 전망. 기대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9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장기 매출 성장 기대감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추가 수준으로 평가

2) 9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국내 피지컬 AI 이슈 부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 2026년 실적 호전 및 주주 환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가을부터 국내에서도 피지컬 AI 육성을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 및 AI 기지국으로의 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통신사 실적은 내용상 좋았다. KT가 인건비 및 제반 영업비용 증가 흐름을 나타낸 것은 아쉬웠지만 SKT와 LGU+의 경우엔 서비스 매출액 및 주요 제반 비용 측면에서 당초 예상보다도 더 우수한 면모를 나타냈다. 더불어 SKT와 KT의 자회사 이익 기여도가 기대치를 상회한 점도 고무적이었다. 이에 따라 2026년 SKT의 실적/배당 조기 정상화는 물론 LGU+의 장기 이익 성장/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6년 SKT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며 LGU+는 4분기 인센티브 지급을 감안해도 연간 1조원이 훌쩍 넘는 연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통신사 실적은 연초 전망대로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을 이후엔 점차 장기 서비스매출액과 더불어 이익 성장, 배당 증가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배당 유입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2027년 이후 재차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갖게 한다. 2026년 9~11월 피지컬 AI 육성을 위한 규제 기관과 통신 3사간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진화가 이루어져야 피지컬 AI가 성공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통신 규제 기관과 더불어 IT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결국 AI 활성화를 위해 기지국 고도화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AI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에서 엣지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DU 신호 처리를 고도화하며 RU의 효율성을 높여 단말기(스마트폰/자동차/로봇/드론/UAM/공작기계)와 단말기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피지컬 AI 성공시킬 것이다. 규제 기관은 신규 주파수 할당에 나서고 통신사는 신규 주파수 기지국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투자 증대를 이유로 요금제 업셀링을 시도하고 IT 업체들은 AI 기지국을 통해 성장을 시도하는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지만 국내에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대한 로드 맵이 발표되고 9월 이후 통신사 이동전화 ARPU 성장 기대감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 판단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9월)	투자 매력도 (8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 상반기 실적 양호, SKT/LGU+ 2026년 연간 높은 이익 성장 예상 - SKT 실적 양호해 4Q DPS 증가/비과세 배당 개시 예정 - 엔트로픽 IPO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추진, SKT 차익 커질 듯 - SK하이퍼 IDC 이익 기여도 증가 시 SKT 배당 증가 가능성 높아 - LGU+ 자사주 900억원 매입 중, 2027년 소각 예상 - LGU+ 장기 주주 환원 중대 기대감 다시 높아질 듯 - 미국 어퍼 C밴드 경매 확정, 5G SA 시대 본격 개막 - 과기부/통신 3사 AI 네트워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예정 - AI 기지국 본격 도입, 5G SA/6G 투자 동인 될 전망 - LTE/5G 통합 요금제 출시, 사실상 신청권 요금 인하 일단락 - LTE/5G 요금 통합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 위한 사전 작업 완료 - KT AI 결합 요금제 출시, 9만원 이상 AI 서비스 무료 제공 5G SA/6G 투자 활성화 위해 통신사 요금제 개편 시도 예상 - 피지컬 AI 활성화 위해 AI RAN 구축 전망, 5G SA 기지국 변화 예상 - 국내 5G 신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대두, 가을 이슈로 부상할 듯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ARPU 성장 기대감 높다는 점 감안 시 통신주 밸류에이션 매력적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 8월 통신업종 수익률은 KOSPI 소폭 하회, SKT 주도주 역할 지속 중

8월 통신주 수익률 KOSPI를 소
폭 하회, 종목별로는 SKT 주도
주 역할 지속 중

8월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소폭 하회했다. KOSPI가 급락에서
벗어나 박스권 등락을 나타낸 가운데 통신 3사 주가도 특별한 재료가 부각되지 못하는
가운데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 종목별로는 SKT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업종 주가를 주도하는 양상이었
다. 엔트로픽 IPO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매겨질 것이란 기대와 더불어 SK하이퍼 데이터
센터 매출/이익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예상대로 SKT와 LGU+ 2
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었는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영향은 미미하였다. LGU+는
예상대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실제 매입을 진행 중이나 주가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
는 모습이었다.

도표 3. 2026년 8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10.3	2.5	(2.4)	19.5

주: 지수는 8/28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8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20.0	1.8	7.2	18.8
KT	1.1	5.0	(11.6)	22.1
LG유플러스	2.7	(0.3)	(10.0)	16.7

주: 주가는 8/28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4) 9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상회할 듯, AI 기지국 위한 5G SA 투자에 주목

9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를 상회할 듯, AI 기지국 활성화/신규 주파수 할당 논의 가능성에 주목

2026년 9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단기 코스피 상승이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급등만 아니라면 통신주가 시장 수익률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7년 이후 서비스매출액 성장과 더불어 장기 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9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는 많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미국 주파수 경매 및 5G SA 투자 본격화, 2) 국내 피지컬 AI 네트워크 전략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로드 맵, 3)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최종 사업자 선정, 4) 통신사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통신산업에 중요한 이슈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 대거 눈에 띈다. AI 기반의 데이터센터와 기지국이 향후 통신산업을 이끌 것이란 점에서 보면 그렇다. 물론 AI 데이터센터와 AI 기지국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기 CAPEX 증대에 대한 현금 흐름 악화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확장을 통한 이익 증가 및 배당 재원의 추가 확보, AI 기지국 투자를 통한 본사 이동전화 ARPU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호재가 악재를 압도한다. 어찌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이룰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7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어퍼 C밴드(3.98~4.14GHz) 160MHz에 대한 경매를 진행을 승인하였다. 2027년 4월 경매 진행이 유력한데 이러한 미국의 주파수 경매는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국이 피지컬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서히 5G 신규 주파수 공급이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신규 요금제 출시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2019년 이후 8년만에 2027년 ARPU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가을 이후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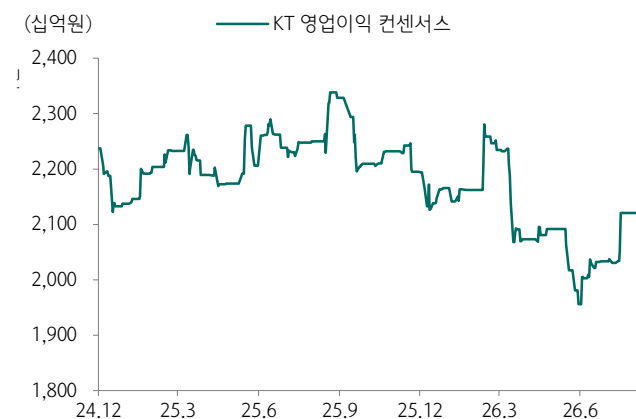
도표 5.9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올 가을 국내에도 피지컬 AI 활성화 기대감 커질 전망, AI 데이터센터와 AI 기지국 큰 화두로 부상할 것, 통신사 매출 증가 기대감 높아질 전망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미국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 확정, 2027년 4월 경매 예정 - 통신 3사/과기부 AI 네트워크 민관 협의회 구성 예정, 5G SA 도입 본격화 예상 -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2026년 연말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 KT 9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AI 서비스 무료 제공, 통신사 AI 과금화 본격화 - 올 가을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사업자 발표 예정, SKT 선정 가능성 높아 긍정적 - LTE/5G 요금제 통합, 요금 인하 정책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 - SK하이퍼 SPC 형태로 설립, 데이터센터 이익 SKT 배당금으로 유입될 것 - LGU+ 자사주 900억원 취득 중, 2027년 소각으로 장기 주주 환원 중대 이루어질 전망 -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급부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 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비용 통제로 이익 증가하는 전형적인 성숙기 후반 모습 연출 중 -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본업 복귀,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 LGU+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2026년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일시적 감소 예상 - SKT를 제외한 KT/LGU+ 2026년 배당금 총액 정체 예상 - 데이터센터 투자 증대로 단기 현금흐름 악화 예상 2024년 이후 트래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정체 우려감 커질 것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통신사 장기 이익 증가/DPS 성장 흐름 전망, AI 기지국/5G SA 도입 기대감 평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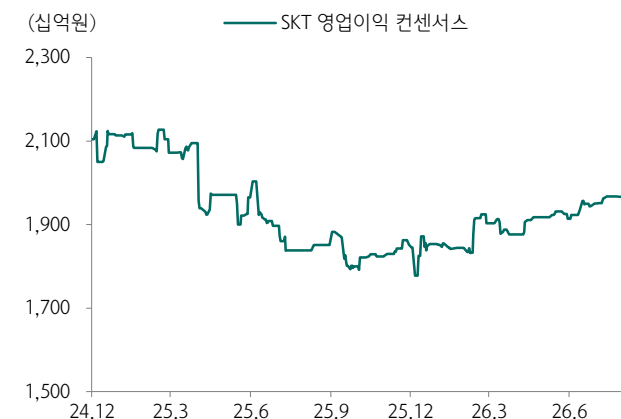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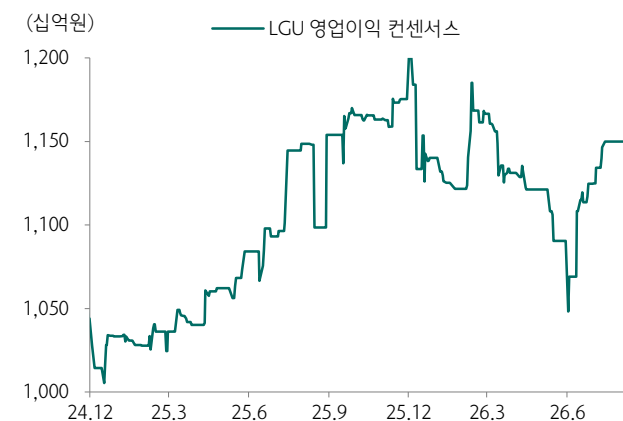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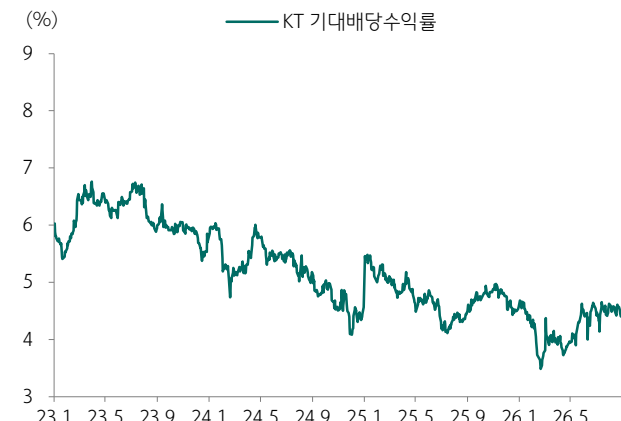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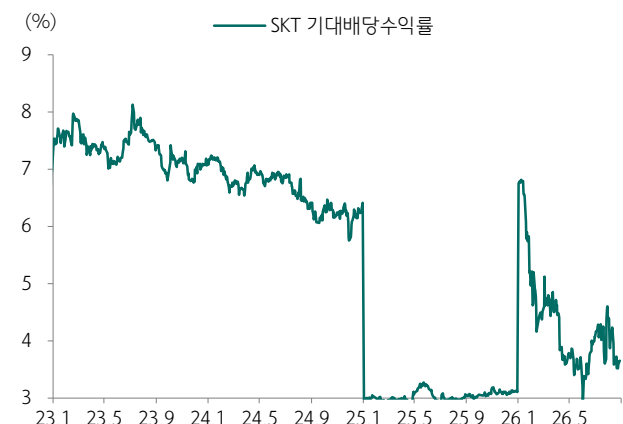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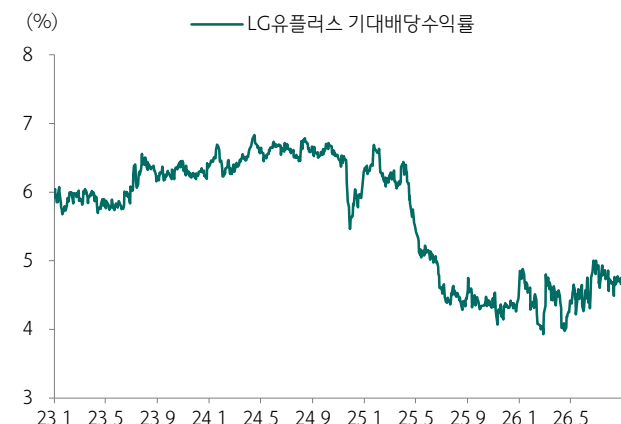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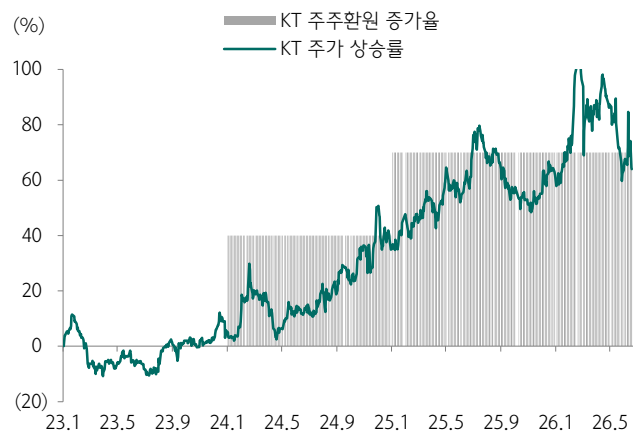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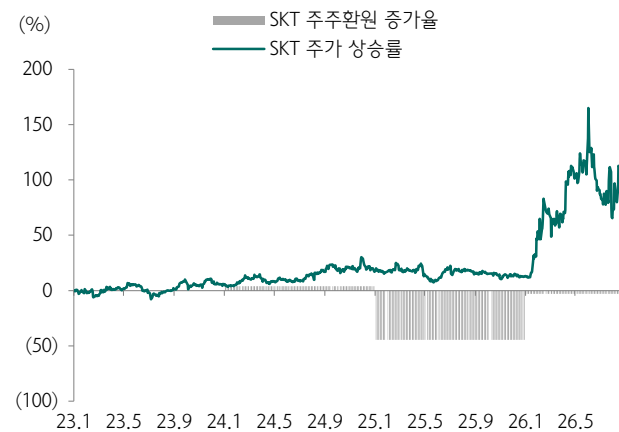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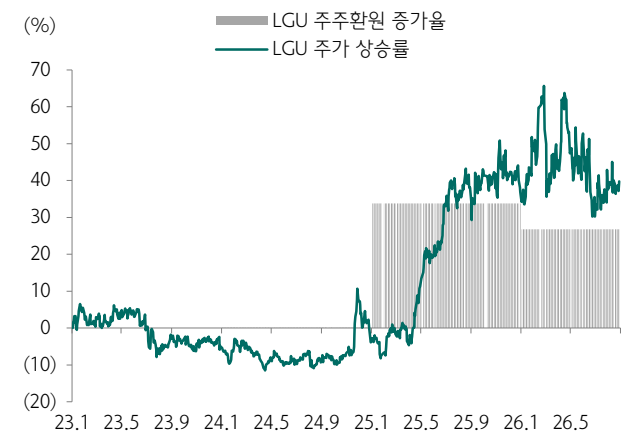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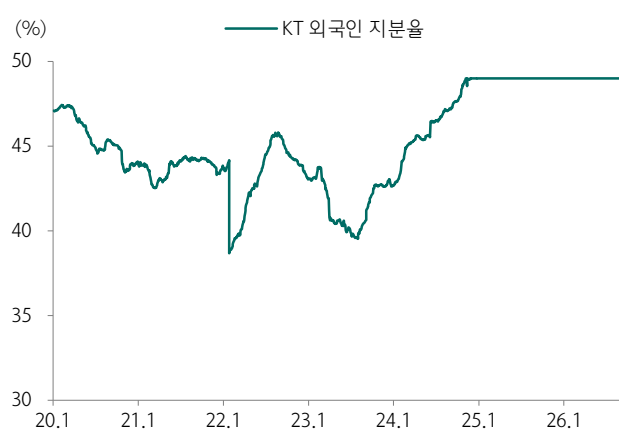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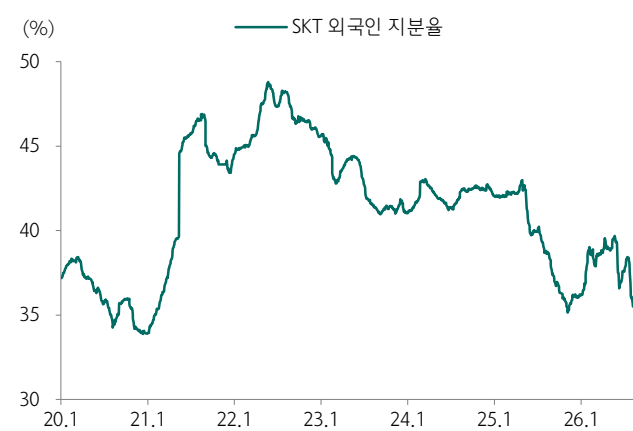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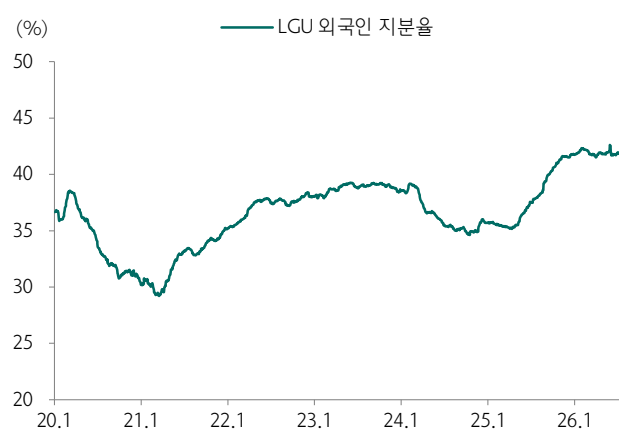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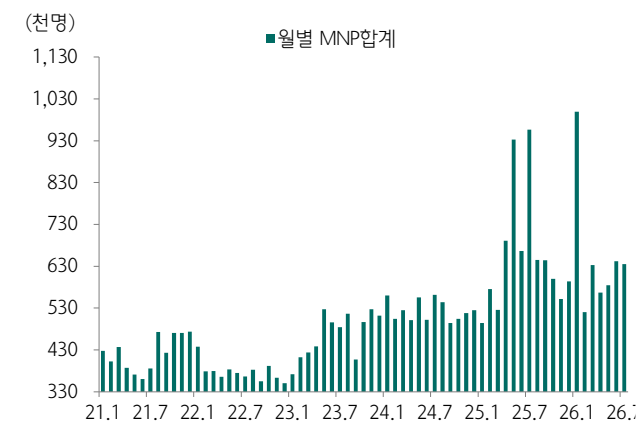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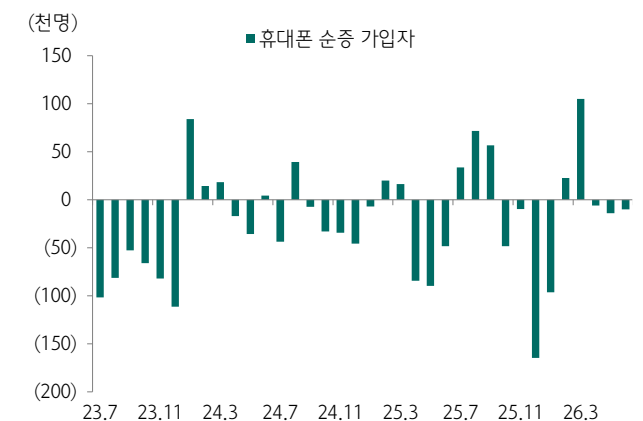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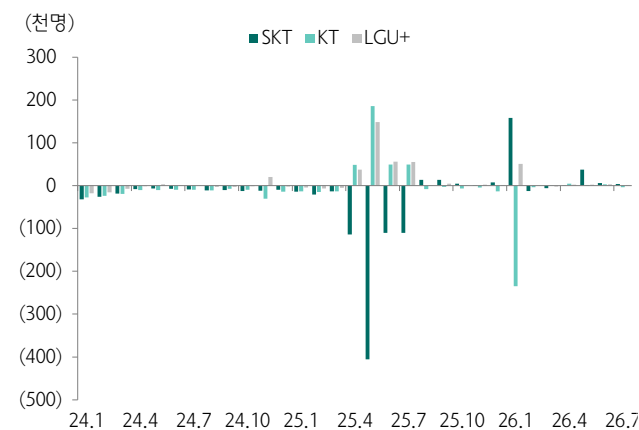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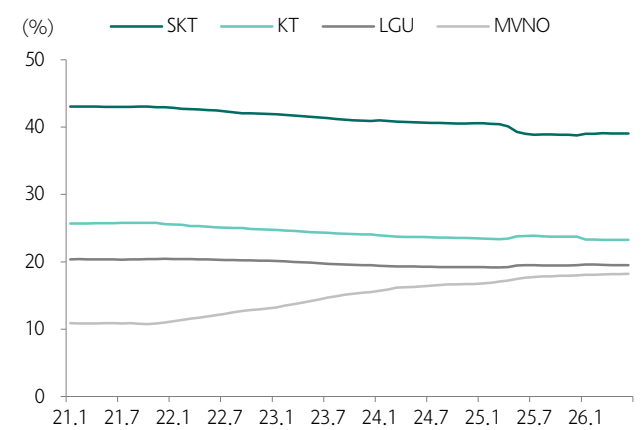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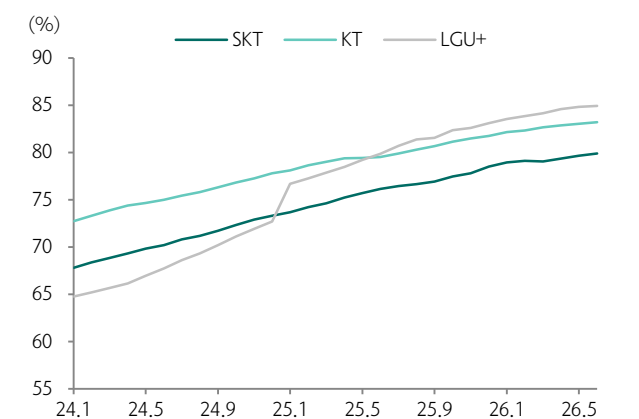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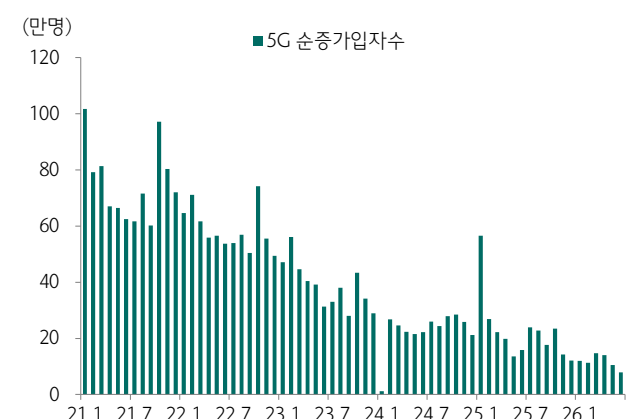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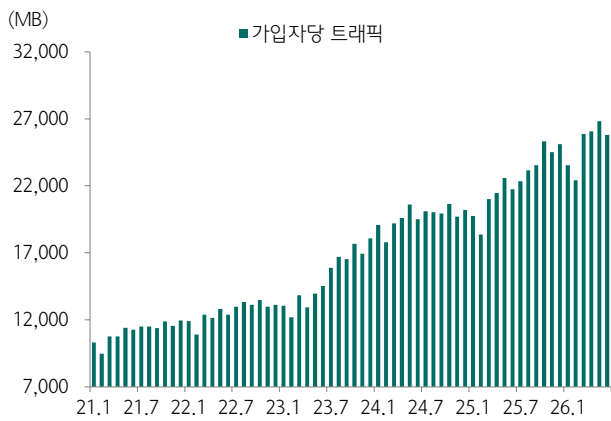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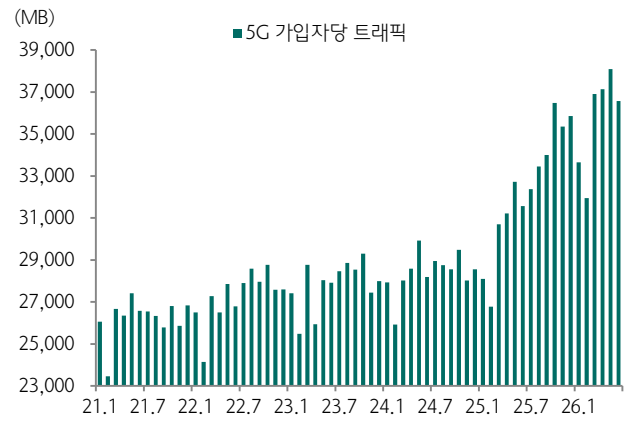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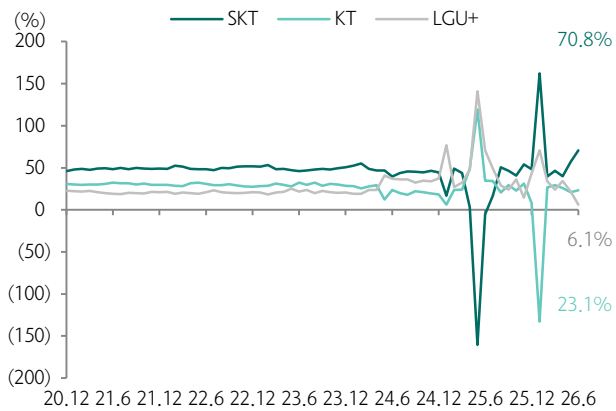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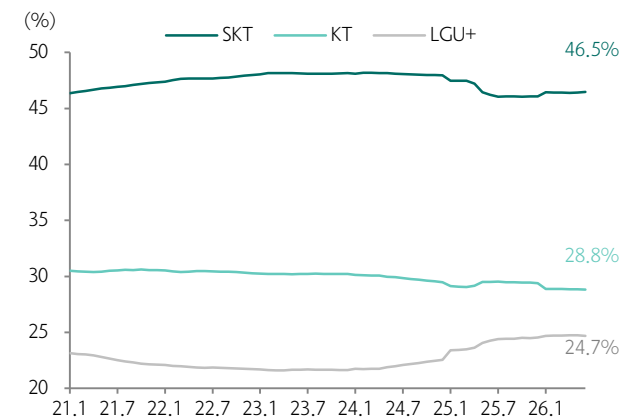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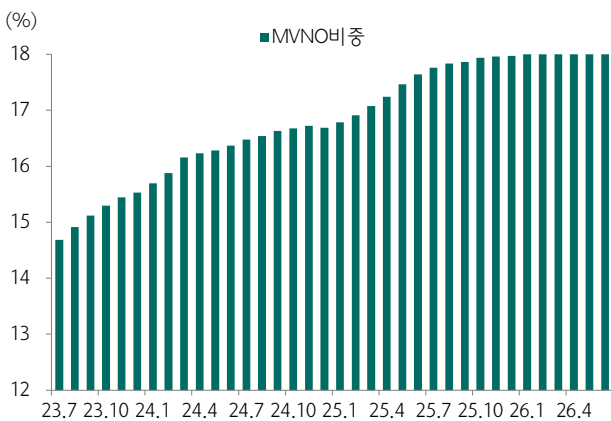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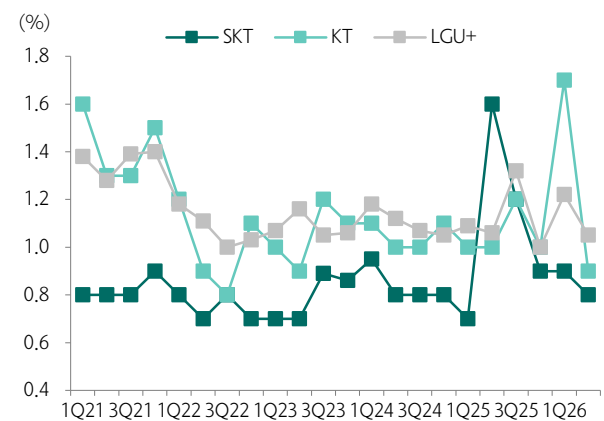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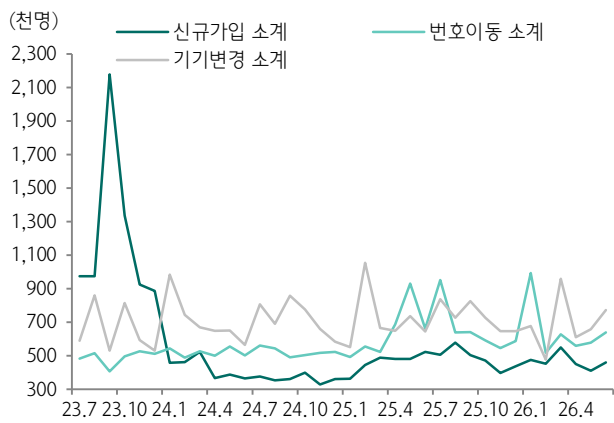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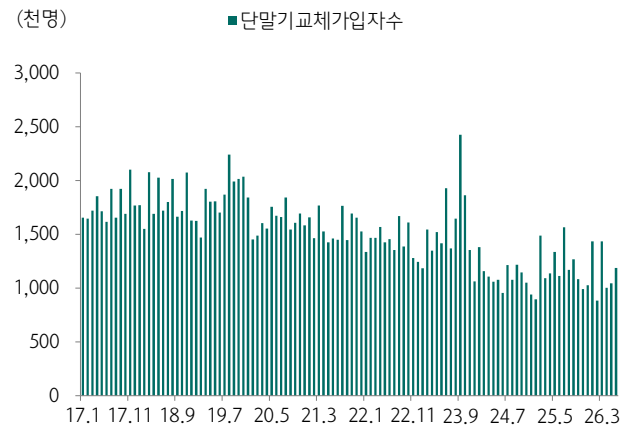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9월 투자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AI 데이터센터/기
지국 사업 기대감 상승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AI 기지국 활성화와 더불어 2027년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 AI 데이터센터/기지국 수익 증대 본격화 -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 휴대폰 가입자 감소,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 매출 성장 기반으로 장기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 AI 결합 상품 출시 통한 과금화에 나서는 양상 - 낮은 PBR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감소 예상 2026년 총 배당금 규모 정체 예상
종합평가	2026년 이익 급증, DPS 정상화 가능성, AI 기지국/데이터센터 대표 주자임을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9월 매력도는 SKT>KT=LGU+ 순, SKT 재료 많아 투자 매력도 높아

9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평가,
재료 많은 SKT를 Top Pick으로
제시

단기 9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제시하고 9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은 SKT로 선정한다. SKT가 AI 국책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엔트로픽 IPO 가격이 높게 형성될 전망이고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월에도 재료가 많아 당분간 업종 대표주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연말 5G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시장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9월에도 SKT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AI 관련주로서의 실체를 가장 잘 입증할 것이며 기업 가치로 볼 때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SKT는 SK하이퍼를 설립하고 SPC 방식의 운영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수익성에 입각한 지역별 데이터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익 달성과 더불어 SKT로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져 장기 배당 증가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7년부터 5G SA 도입과 더불어 AI 기지국 설립 본격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가장 중요한 본사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규 주파수 취득 및 투자 부담에 따른 요금제 개편 가능성이 높고 이동전화 ARPU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라 장기 주가 상승 기대감 팽창이 예상된다.

KT의 경우엔 단기 주가 상승 재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가을 이후 통신서비스 업종 전반적인 매수세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9월부터 5만원 초중반에서는 매수에 임할 것을 권한다. 시중 금리 하락과 더불어 규제 기관과 통신사간 5G SA 도입 및 신규 주파수 할당 논의가 시작될 경우 낮은 주가를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반기 실적이 모두 발표됨에 따라 2026년 본사 이익 정체 및 연결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며 배당 성향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2026년은 물론 2027년에도 배당 증가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다. 악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며 2027년 이후 이동전화매출액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대배당수익률이 4.5%에 달하고 보면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한다고 보면 투자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LGU+의 경우에도 주가로 보면 가격 메리트와 배당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15,000원 수준에서는 저점 매수로 대응할 것을 권한다. 아직은 자사주 취득에 따른 수급 개선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실적이나 배당, 장기 서비스 매출액 성장 기대감 부각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별한 매도 주체가 없을 것이라 수급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서히 연말로 다가가면서 2027년 실적 및 주주환원으로 투자자들의 시각이 이동할 것이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LGU+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 중장기 주가 전망은 밝다는 판단이다. 미국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연말부터 시중 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면 LGU+의 기대배당수익률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 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AI 데이터센터/RAN 관련 수혜주
KT	매수	76,000원	• 부동산 자회사 및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편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전망, 낮은 PBR/PER 기록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 축소, 2)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9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8/28)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98,600원	90,000~140,000원	16.5	1.5	• 올해 DPS 정상화 예상, 실질적인 국내 AI 대표주
2	KT	54,500원	50,000~65,000원	9.5	0.7	• 단기 이익/배당 정체 예상, 하지만 장기 ARPU 성장 기대감 높아질 것
2	LGU+	15,020원	14,000~18,000원	9.0	0.7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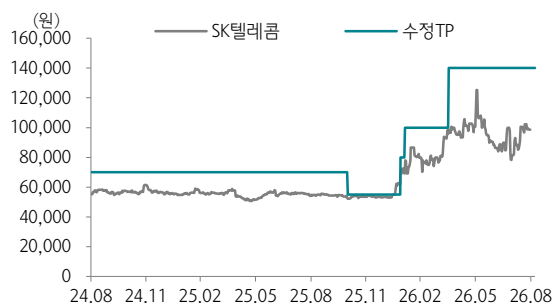
도표 35. 9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9월)	순위(8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AI 데이터센터/기지국 관련 수혜주, 이익/배당 정상화 속도 빨라
KT	2	3	▲1	• DPS/이익 정체 예상, 하지만 장기 성장성 감안 시 추가 수준 매력적
LGU+	2	1	▼1	• 2027년 다시 주주 환원 규모 증가 예상, 금리 하락 시 배당수익률 부각될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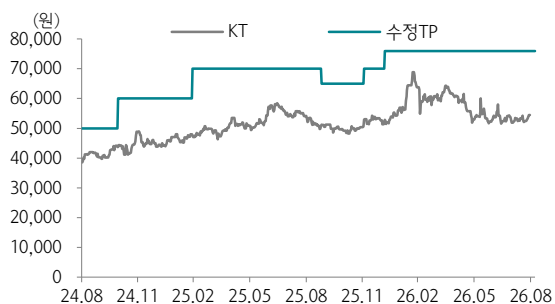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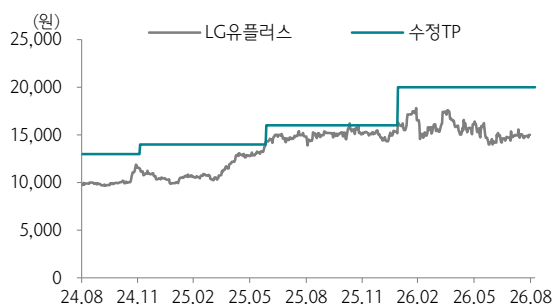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9월 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9%	1.8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29일